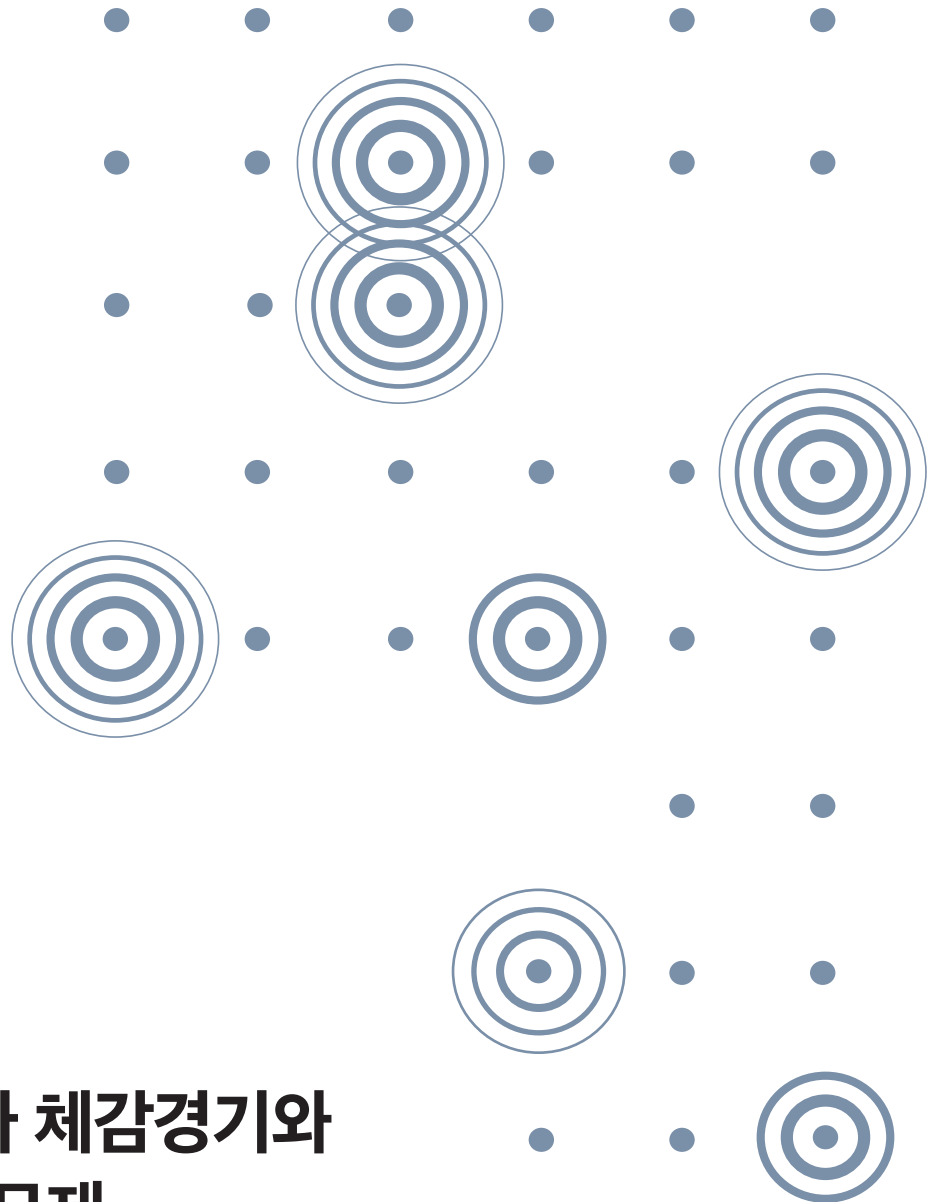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277호 2019. 6. 24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

최 봉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77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19년 6월 24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

최봉 연구위원
02-2149-1059
cbong@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주 52시간 근무제	19
부록: 2019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24

요약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 제조업생산은 하락

2019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지만, 전분기(2.3%)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하락하는 등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6.9%로 하락세가 큰 편이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9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백화점 판매액은 3.1% 증가하였다. 1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0.9% 감소한 505만 2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0.2% 감소한 84만 9천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9년 2/4분기 92.7로 전분기 대비 1.0p 소폭 하락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p 하락한 86.0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보다 2.0p 하락한 88.8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하락한 67.8,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보다 3.4p 하락한 79.5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4.8로 전 분기 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에 비해 0.5p 상승한 96.1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순자산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하락하였지만, 3분기 연속 하락하였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반등하였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삶의 질 향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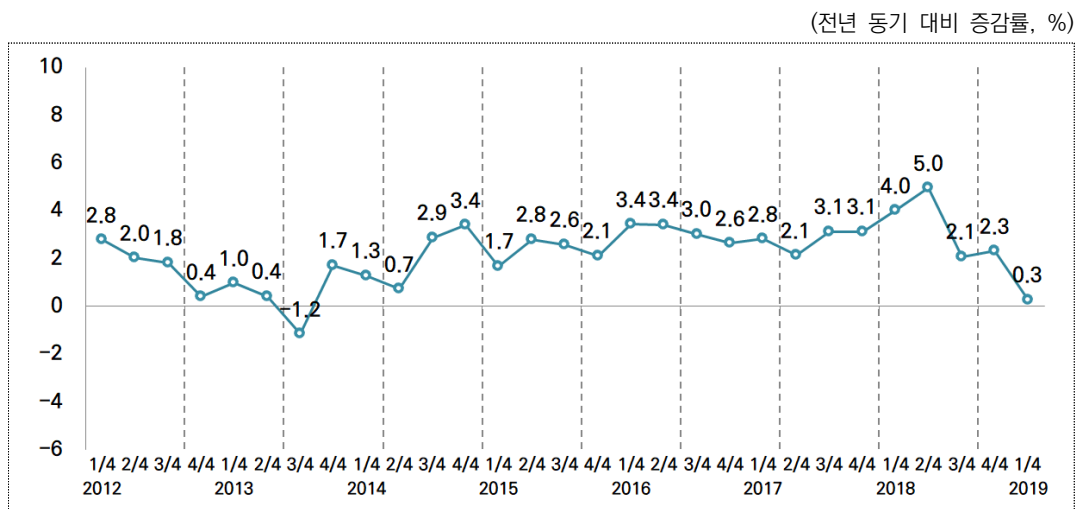
주 52시간 근무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8.2%였으며, 이 중 55%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서울시민의 56.3%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요인 1순위는 ‘여가시간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부정적 요인 1순위는 ‘초과수당 줄어 임금 감소’로 나타났다. 응답 가구의 63.9%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강도’와 ‘삶의 만족도’, ‘소비지출’은 증가한 반면, ‘근무시간’과 ‘금전적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I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 제조업생산은 하락

2019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

- 2019년 1/4분기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지만 전 분기(2.3%)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1%), 정보통신업(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1%) 등은 5% 이상 증가한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9%)과 금융 및 보험업(-3.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5%) 등 절반 이상의 업종이 감소
- 2019년 4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98.4로 전년 동월 대비 4.5% 하락
 - 2019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15.7%라는 큰 폭으로 감소한 「제조업생산지수」는 2019년 4월 전년 동월보다 4.5% 감소하여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6.9%로 하락세가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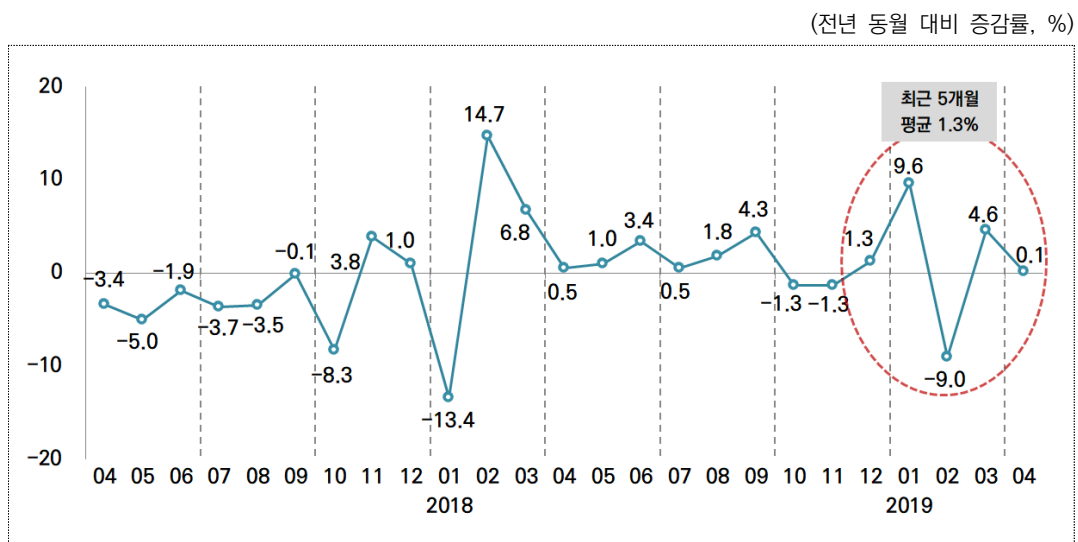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다.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

- 2019년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95.2로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쳐 2018년 4월과 비슷한 수준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지만, 2019년 2월 전년 동기보다 9.0% 감소하는 등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1.3%에 불과
- 부문별로 보면, 4월 중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보다 5.7% 감소
 - 백화점 판매액은 101.0으로, 전달 109.2에 이어 2개월 연속 기준치 100 이상을 기록(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3.2%)
 - 대형마트 판매액은 2월 -17.5%라는 큰 폭으로 감소한 후 3월 소폭 반등하였지만, 4월 들어 다시 5.7% 하락(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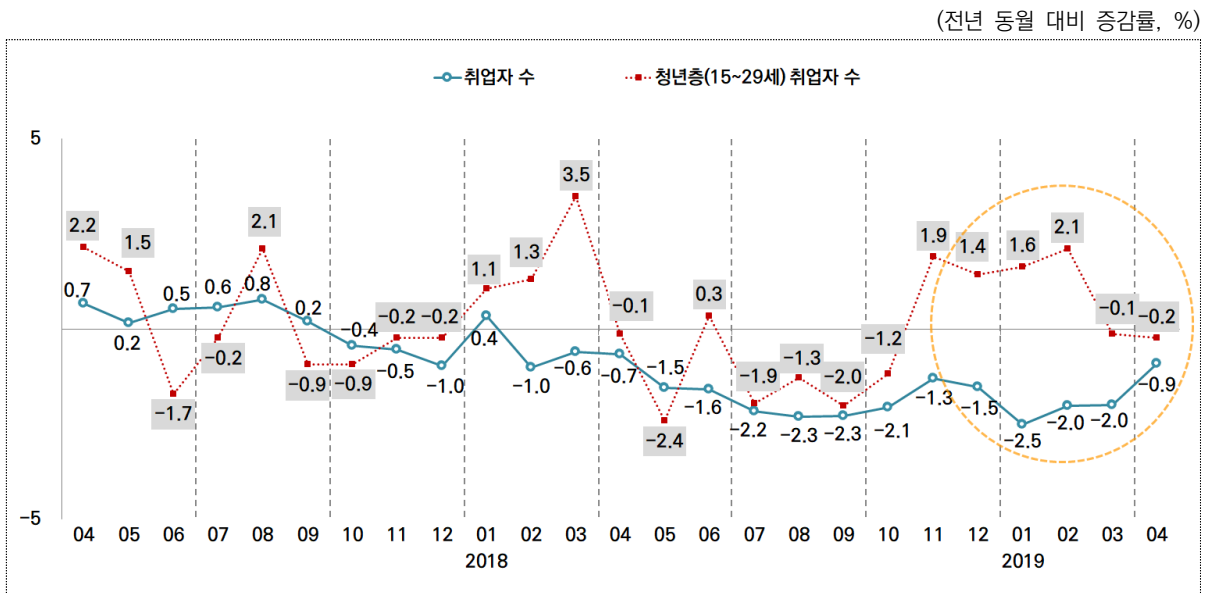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소폭 감소

- 2019년 4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³⁾는 505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509만 8천 명)보다 0.9%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8%)
- 2019년 4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5만 1천 명)보다 0.2% 감소한 84만 9천 명 수준
 -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2개월은 소폭 감소(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0%)
-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전달 대비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의 오름세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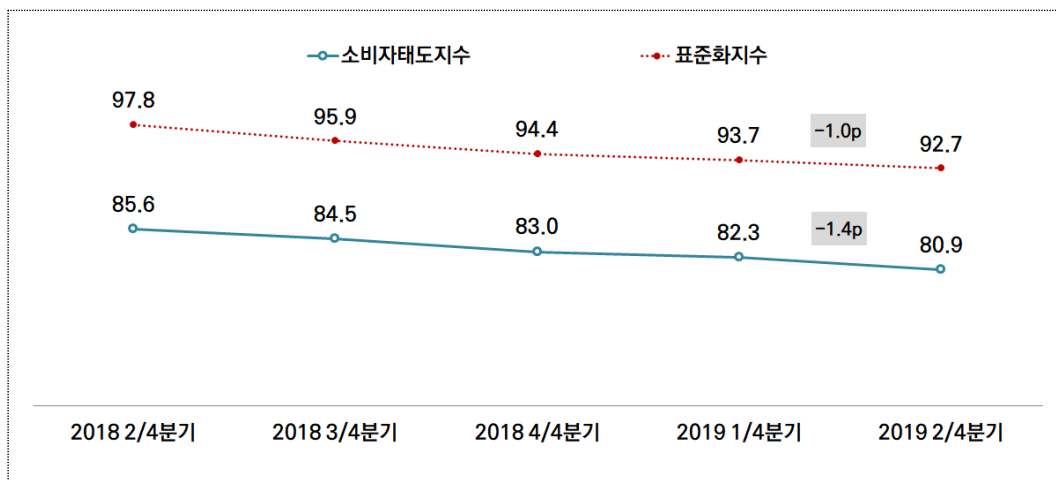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다.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I 서울시민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 2019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92.7로 전 분기 대비 1.0p 하락
 -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0p 하락한 92.7로 2018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2018년 1/4분기 이후 지속해서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
- 2/4분기 이후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 향방은 고용지표의 개선 정도에 달려
 - 최근 1년간 「소비자태도지수」의 추세는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의 하락이 전체적으로 지표에 반영
 -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며 주택 구입심리 등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하반기 반등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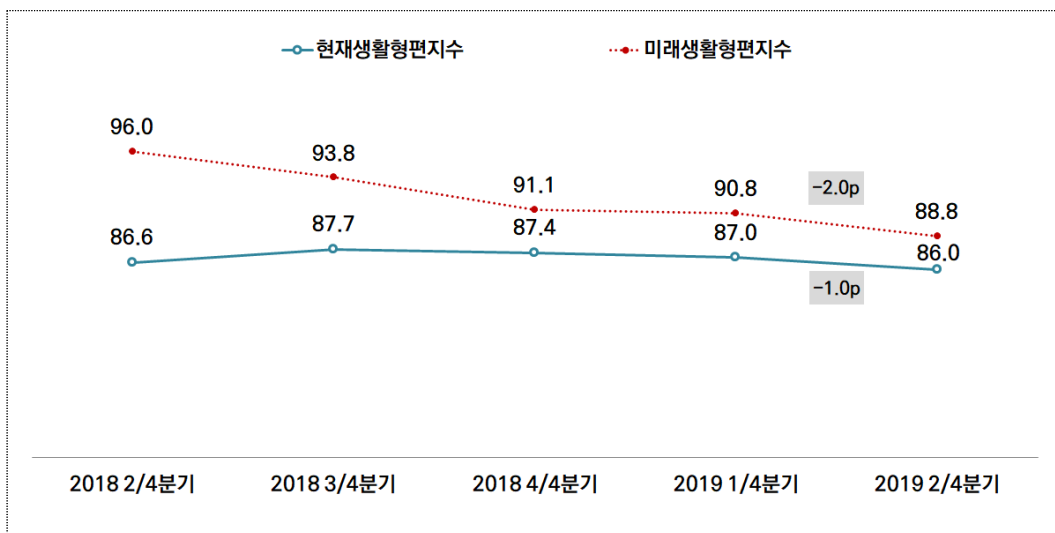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시계열의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현재생활형편지수·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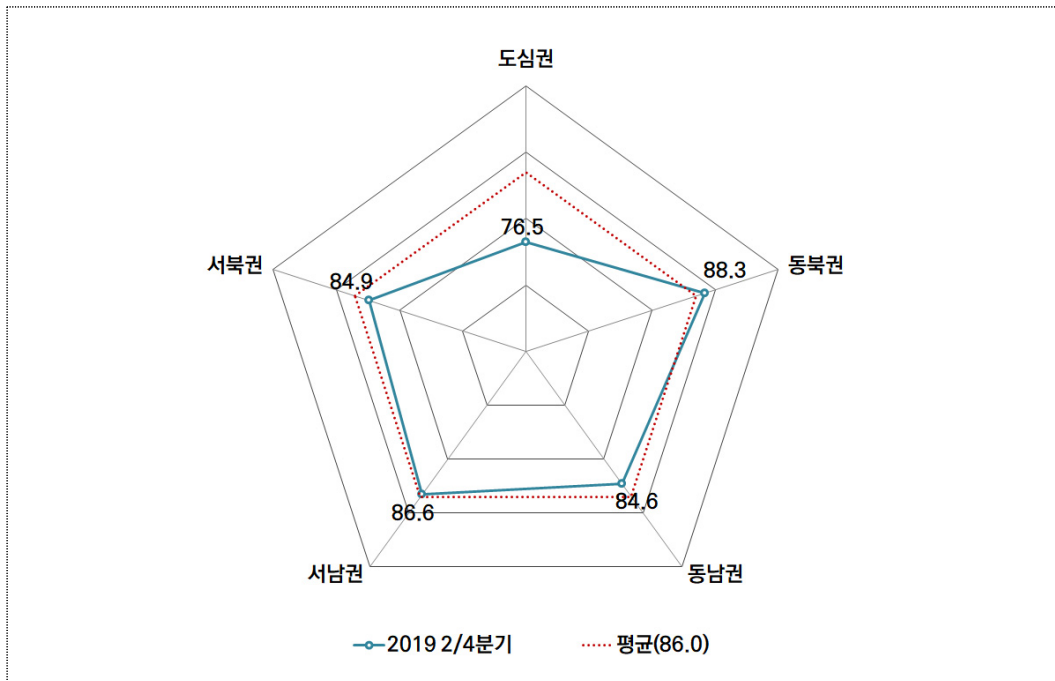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0p 하락한 86.0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0p 하락한 88.8을 기록
 - 소득계층별로 볼 때 연 가구소득 4,800만~6,000만 원 미만 가구만 「현재생활형편지수」(6.4p)와 「미래생활형편지수」(6.5p)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5.0p로 가장 크게 하락하는 등 40대 이하는 감소, 50대 이상은 증가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 1순위는 경기 불황
 - ‘경기 불황’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소득 감소’(27.3%)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
 - 그다음은 ‘물가 상승’(16.8%), ‘지출비용 증가 예정’(10.6%), ‘가계부채 증가’(10.3%)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만 원 미만은 ‘가계소득 감소’가, 4,800만 원 이상은 ‘경기 불황’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기 불황’ 및 ‘가계소득 감소’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특히 60대는 ‘경기 불황’ 응답비율이 4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제일 높고, 도심권은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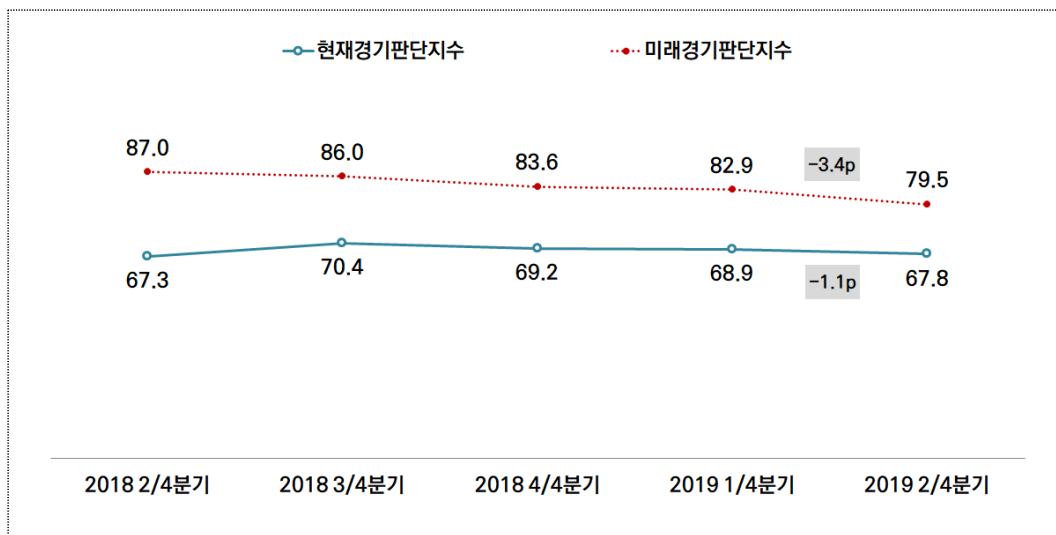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88.3으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서남권(86.6), 서북권(84.9), 동남권(84.6) 순으로 4개 권역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도심권만 76.5로 유일하게 70대를 기록
- 2019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만 전 분기 대비 2.6p 상승
 - 동북권만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서남권(-0.4p), 서북권(-1.2p), 동남권(-3.6p) 등 나머지 권역은 모두 하락
 - 특히 도심권은 전 분기에 견줘 16.6p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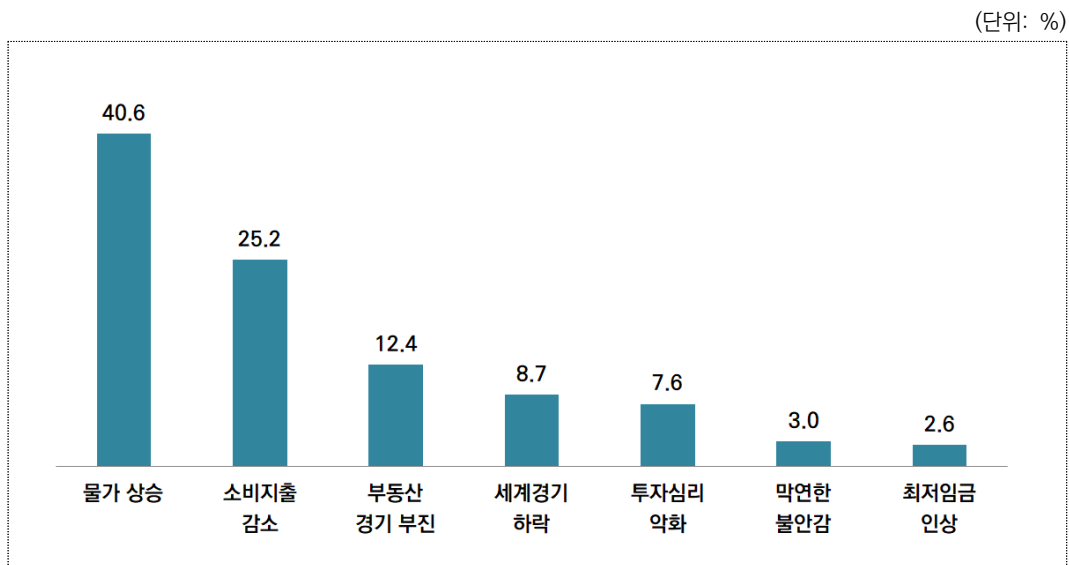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7.8로 전 분기 대비 1.1p 하락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기(67.3) 대비는 소폭 증가한 수준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서울의 제조업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가 크지 않고, 고용지표도 개선되지 않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 연령별로 본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0대 이하만 3.6p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하락한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전 분기 대비 -8.4p로 가장 크게 하락
- 2019년 2/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79.5로 전 분기 대비 3.4p 하락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17년 2/4분기 110.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4분기의 소폭 상승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하락세로, 최근 4분기 연속 하락하며 70대를 기록
 - 연령별로 본 「미래경기판단지수」는 40대에서 -6.0p로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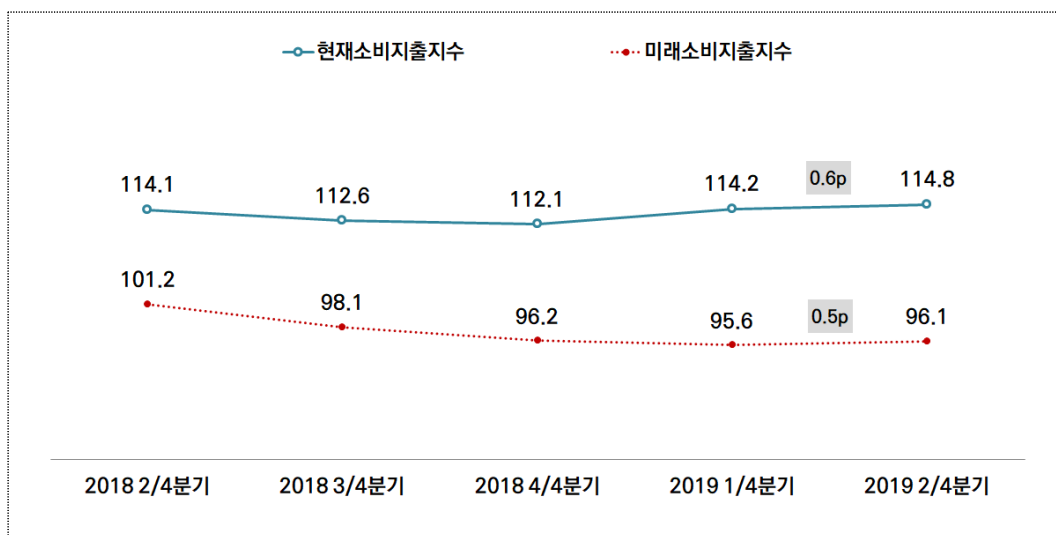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조사
 - ‘물가 상승’이 40.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25.2%), ‘부동산 경기 부진’(12.4%), ‘세계경기 하락’(8.7%), ‘투자심리 악화’(7.6%) 등의 순
- 소득수준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만~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물가 상승’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소득 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소비지출 감소’ 응답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은 편
 -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지출 감소’ 응답비율이 높게 조사
- 2019년 5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같은 0.7%였으며, 전년 동월 1.4%보다는 낮아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19년 1월 0.9% → 2월 0.7% → 3월 0.5% → 4월 0.7% → 5월 0.7%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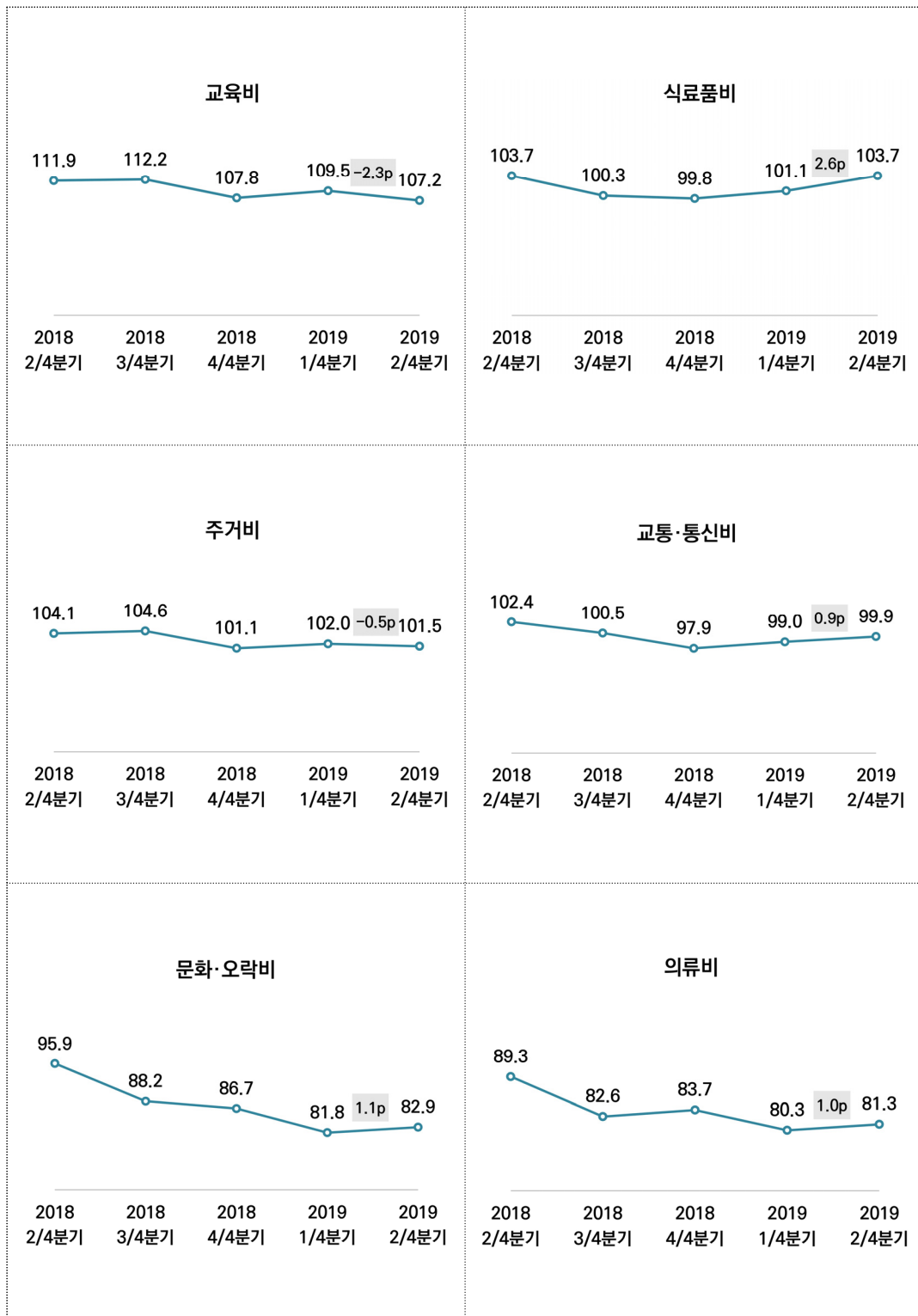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4.8로 전 분기 대비 0.6p 상승
 - 2/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하며 2014년 1/4분기부터 꾸준히 기준치(100) 이상을 유지
 - 가구주 연령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 수준은 60대(95.6)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100) 이상인 가운데 30대 이하와 50대는 전 분기 대비 상승, 40대와 60대는 전 분기보다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전 분기 대비 -8.1p로 가장 크게 하락
- 2019년 2/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6.1로 전 분기보다 0.5p 상승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60대(-3.6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만~7,2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보다 4.9p 상승하며 103.8을 기록,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넘는 것으로 조사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 ‘교육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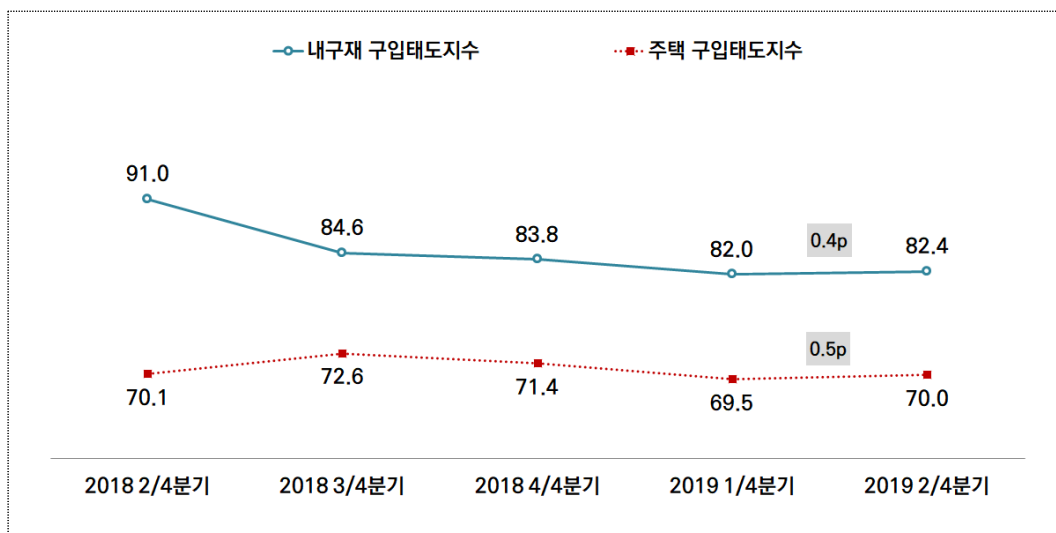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
 - 2/4분기 ‘교육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2.3p 하락하였지만, 기준치 이상인 107.2로 여전히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
 - 2/4분기 ‘식료품비’ 지수는 전 분기보다 2.6p 상승한 103.7로, 2018년 4/4분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기준치(100) 이상
 - 2/4분기 ‘주거비’ 지수는 전 분기보다 0.5p 소폭 하락하였지만, 기준치(100) 이상인 101.5를 기록
- 2019년 2/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품목이 모두 상승하였지만, 소폭 상승에 불과
 - 2/4분기 ‘문화·오락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상승한 82.9를 기록해 3분기 연속 하락 후 소폭 반등
 - 2/4분기 ‘의류비’ 지수 역시 전 분기보다 1.0p 소폭 상승하며 81.3을 기록하였지만, 지수 수준이 여전히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2/4분기 ‘교통·통신비’ 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0.9p 상승한 99.9로, 2분기 연속 상승하며 기준치(100)에 근접
-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상승하고 2개 품목이 하락하였지만, 상승폭이나 하락폭 모두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상승 품목이 하락 품목보다 많은 가운데 2/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 주택 구입의사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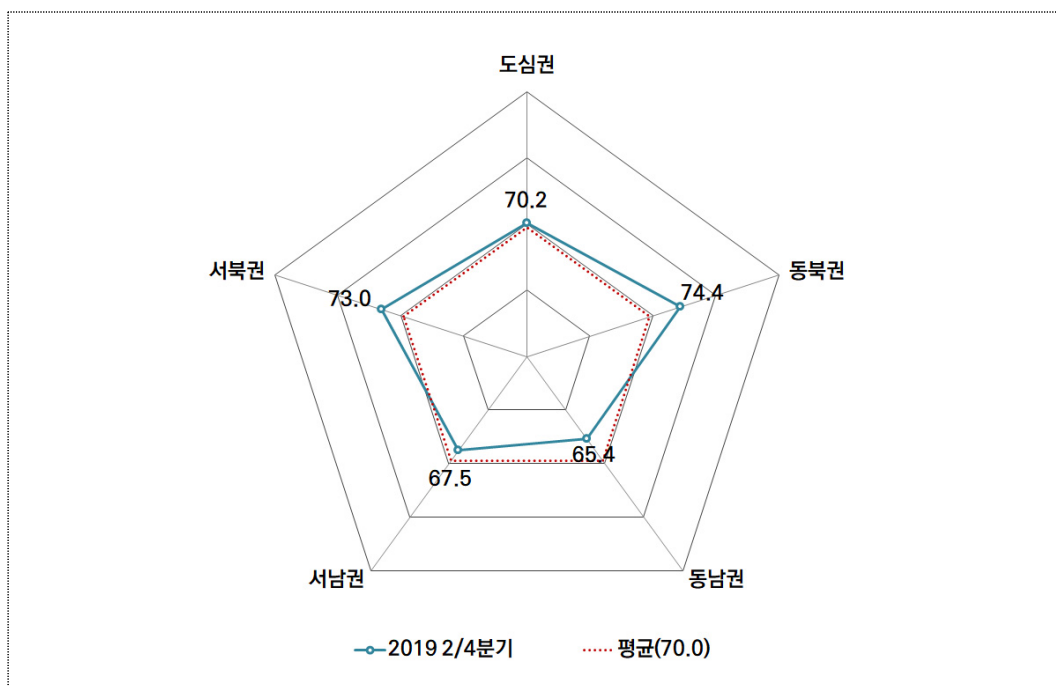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4p 상승한 82.4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구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와 6,000만~7,2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 분기 대비 하락
- 2019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0.5p 상승한 70.0으로, 70대를 회복
 - 가구주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40대와 60대는 하락, 30대와 50대는 상승하였고, 50대가 3.8p로 가장 크게 상승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소폭 상승하며 3분기 만에 반등
 - 2019년 5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05.9로 전월 대비 0.1p 하락하며, 2018년 12월 106.8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2019년 1월 106.6 → 2월 106.4 → 3월 106.2 → 4월 106.0 → 5월 105.9)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서울시민의 권역별 주택 구입의사는 동남권·서남권이 하락, 나머지 권역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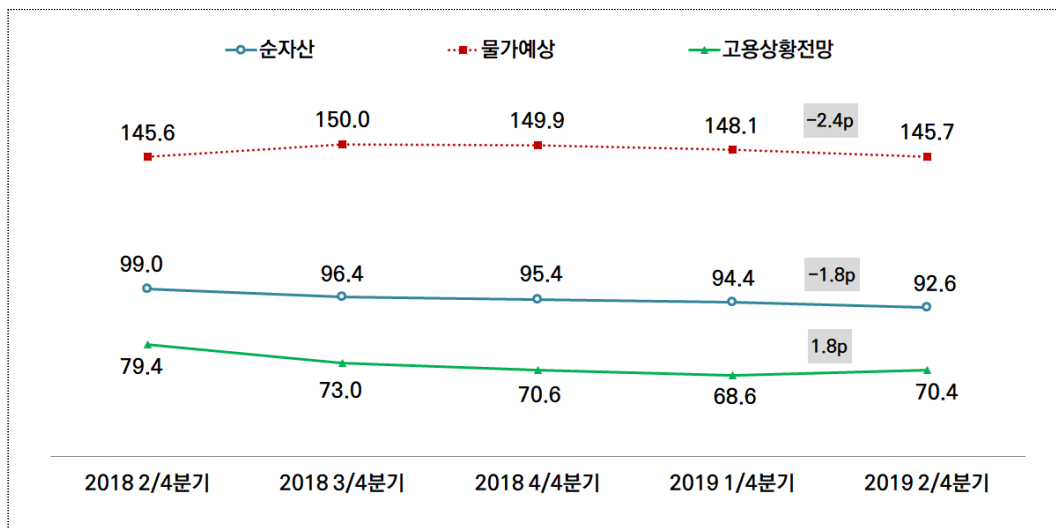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동남권이 전 분기 대비 7.3p 하락
 - 동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65.4로 전 분기보다 -7.3p라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 기록
 - 동남권 외에는 서남권만(-0.3p) 소폭 하락하였을 뿐 나머지 권역은 모두 상승
- 권역별로 본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의사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 서북권과 동북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나란히 4.7p 상승한 가운데, 도심권도 2.4p 상승
 - 그러나 모든 권역에서 「주택 구입태도지수」 수준이 여전히 70대에 머무르며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대다수 시민의 주택 구입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물가예상지수는 하락,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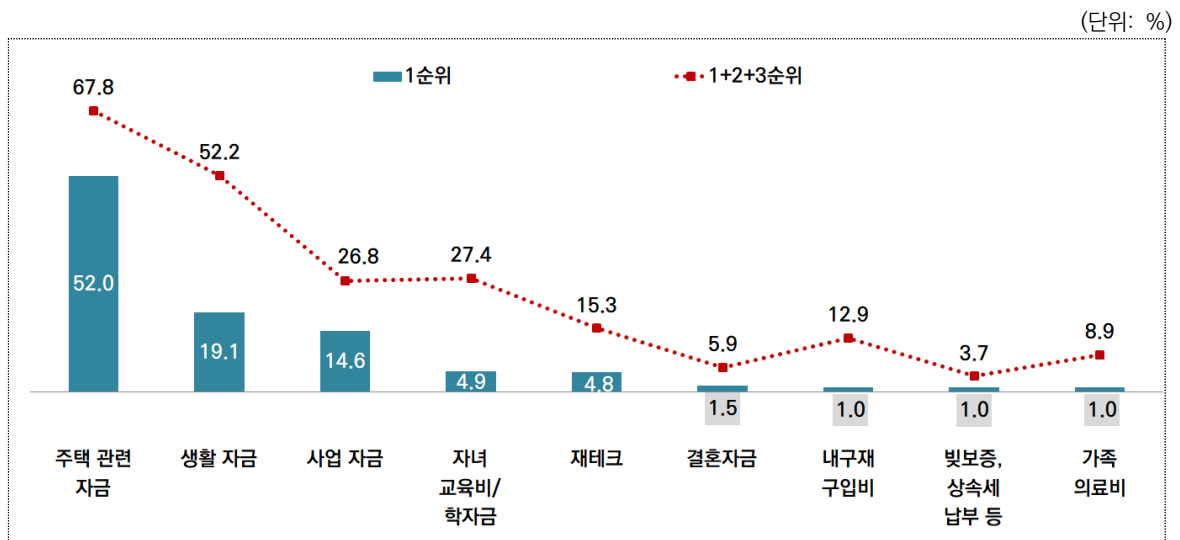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92.6으로 전 분기 대비 1.8p 하락
 -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채가 늘었다’(24.6%), ‘지출이 늘었다’(20.6%), ‘금융자산이 줄었다’(10.6%) 등의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 2019년 2/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45.7로 전 분기 대비 2.4p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2018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였지만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고 있어, 시민들의 체감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
- 2019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0.4로 전 분기보다 1.8p 상승
 - 2018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였던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반등하여 70대 회복
 - 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보다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상승하였으며, 그중 50대가 5.5p로 가장 크게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만~7,200만 원 미만에서 전 분기 대비 6.6p로 가장 크게 상승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보다 하락

- 2019년 2/4분기에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59.1%로 전 분기 대비 3.3%p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가 62.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 이하(61.1%), 50대(59.3%), 60대(51.0%)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21.9%로 전 분기에 견줘 0.8%p 상승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0.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5.7%), '상환 안 함'(4.1%)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여전히 '주택관련 자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관련 자금'(52.0%)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9.1%), '사업 자금'(14.6%), '자녀 교육비·학자금'(4.9%), '재테크'(4.8%)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기준도 '주택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7.8%와 52.2%로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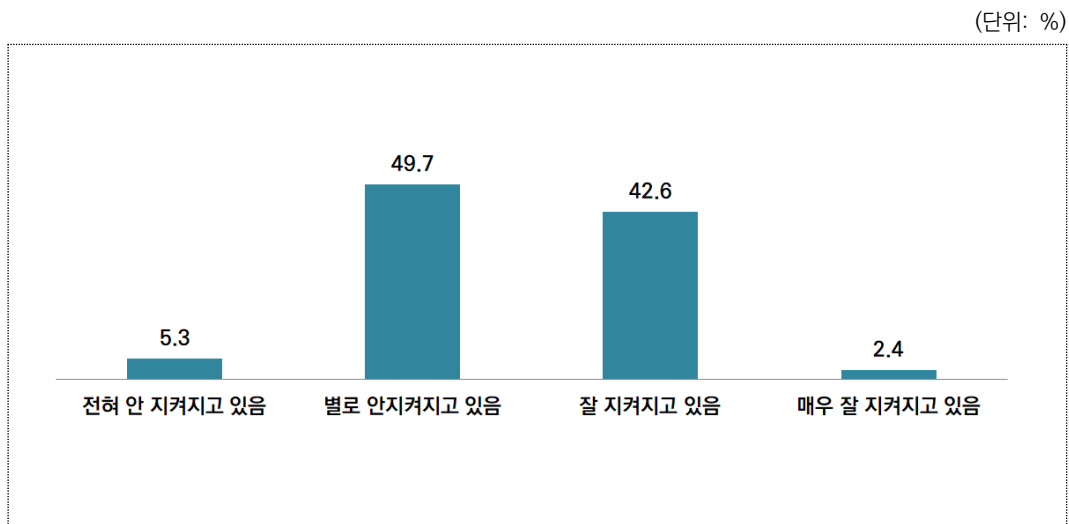
[그림 14]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주 52시간 근무제

Ⅰ 주 52시간 근무제로 삶의 질 향상 기대

서울시민 55.0% “주 52시간 근무제 잘 지켜지지 않는다”

-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8.2%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인지율이 93.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인지율도 높아지는 경향
 - 연령별 미인지율은 50대가 9.6%로 가장 낮았고, 30대 이하가 14.8%로 가장 높게 조사
- 주 52시간 근무제를 인지하고 있는 가구 중 55.0%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
 -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5.3%)와 ‘별로 안 지켜지고 있다’(49.7%)를 합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5.0%로 절반 이상을 차지
 - ‘잘 지켜지고 있다’(42.6%)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2.4%)를 합한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45.0%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30대(58.7%), 40대(52.6%), 50대(51.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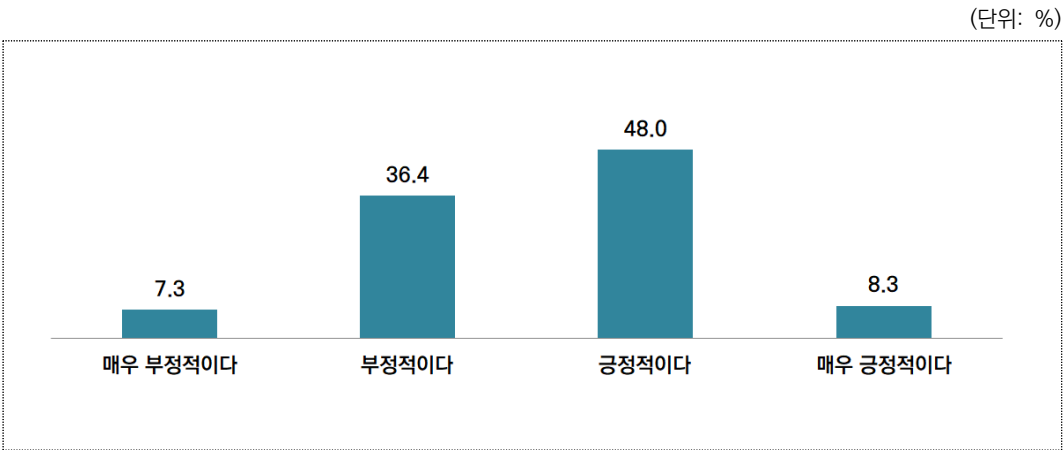


[그림 15]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058명 응답

서울시민 56.3% “주 52시간 근무제는 긍정적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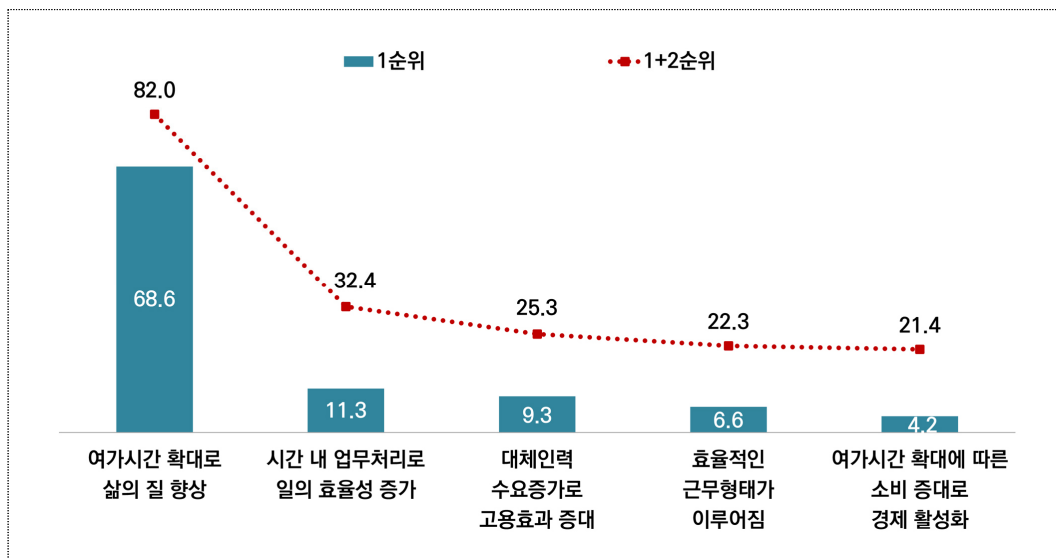
-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서울시민 56.3%는 긍정적, 43.7%는 부정적으로 인식
 - ‘긍정적이다’(48.0%)와 ‘매우 긍정적이다’(8.3%)를 합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
 - ‘매우 부정적이다’(7.3%)와 ‘부정적이다’(36.4%)를 합한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3.7%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 52시간 근무제가 ‘긍정적’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율이 과반수로 가장 높게 조사



[그림 16]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요인 1순위는 ‘여가시간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서울시민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 ‘여가시간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이 6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시간 내 업무처리로 일의 효율성 증가’(11.3%), ‘대체인력 수요 증가로 고용효과 증대’(9.3%), ‘탄력 근무제 등 효율적인 근무형태가 이루어짐’(6.6%) 순
 - 1~2순위 합계 기준도 ‘여가시간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이 82.0%로 1위
 -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시간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대체인력 수요증가로 고용효과 증대’가 23.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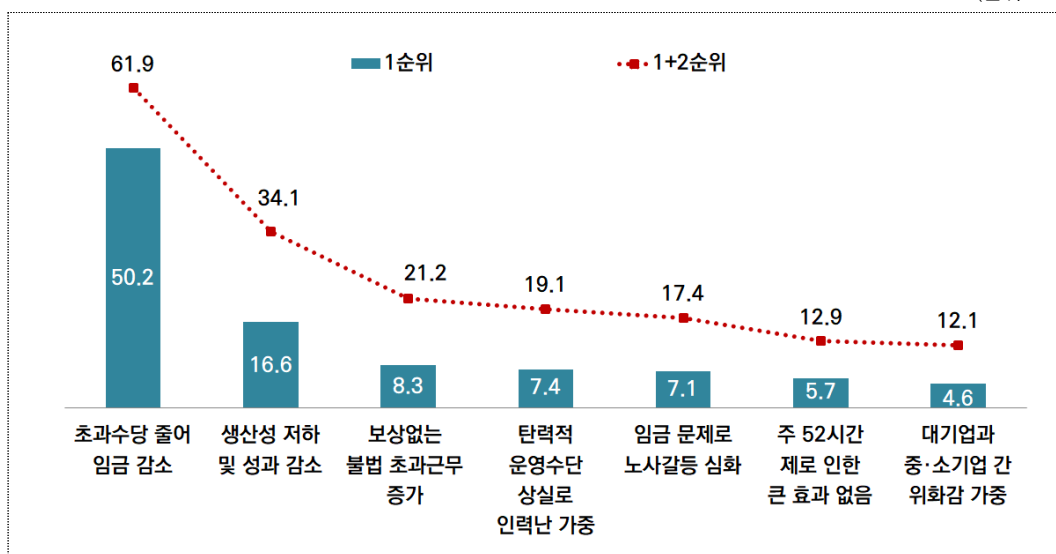


[그림 17] 주 52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

○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요인 1순위는 ‘초과수당 줄어 임금 감소’

- 서울시민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 ‘초과수당 줄어 임금 감소’가 50.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생산성 저하 및 성과 감소’(16.6%), ‘보상 없는 불법 초과근무 증가’(8.3%), ‘탄력적 운영수단 상실로 인력난 가중’(7.4%) 순
- 1~2순위 기준도 1순위와 같이 ‘초과수당 줄어 임금 감소’가 61.9%로 가장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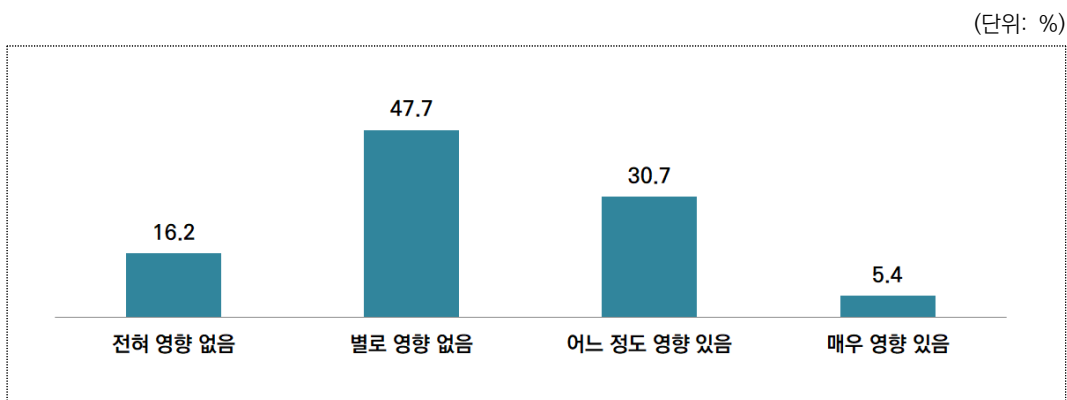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8] 주 52시간 근무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

응답 가구의 63.9% “주 52시간 근무제가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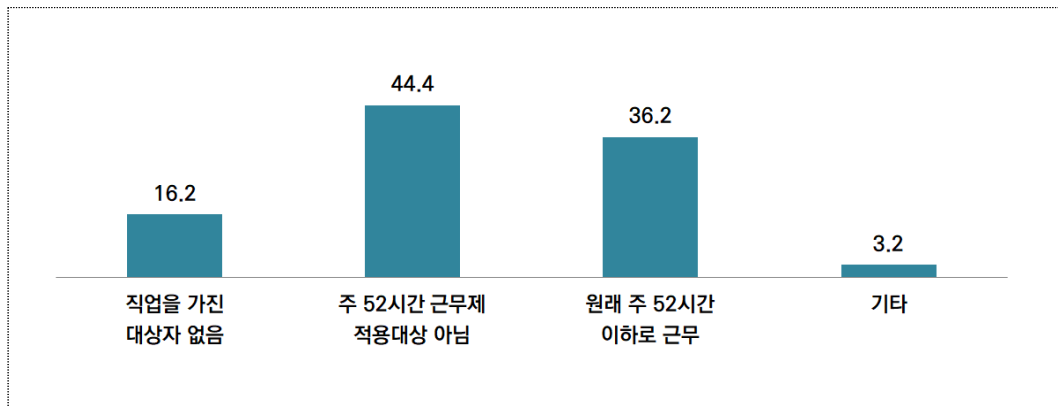
- 응답 가구의 63.9%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높았으며,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게 조사



[그림 19]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미치는 영향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강도’는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도 함께 증가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강도’와 ‘삶의 만족도’, ‘소비지출’은 증가한 반면, ‘근무 시간’과 ‘금전적 수익’은 감소
 - 항목별로는 ‘금전적 수익’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이 56.3%,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은 2.8%
 - ‘근무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이 46.9%,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은 7.4%
 -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34.6%,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20.3%
 -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34.3%,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13.7%
 - ‘소비지출’이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33.4%,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27.4%
- 주 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이 없는 가구의 44.4%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
 - 주 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이 없는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 아님’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원래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36.2%), ‘직업을 가진 대상자 없음’(16.2%) 순
 -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음’, ‘자영업으로 주 52시간을 지킬 수 없음’, ‘재택근무로 대체’ 등

(단위: %)



[그림 20]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영향이 없는 이유

부록: 2019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19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9로 전월 대비 3.7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8년 2/4분기	97.8	86.6	96.0	67.3	87.0	91.0	70.1
2018년 3/4분기	95.9	87.7	93.8	70.4	86.0	84.6	72.6
2018년 4/4분기	94.4	87.4	91.1	69.2	83.6	83.8	71.4
2019년 1/4분기	93.7	87.0	90.8	68.9	82.9	82.0	69.5
2019년 2/4분기	92.7	86.0	88.8	67.8	79.5	82.4	70.0

주: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8년 2/4분기	114.1	101.2	99.0	79.4	145.6
2018년 3/4분기	112.6	98.1	96.4	73.0	150.0
2018년 4/4분기	112.1	96.2	95.4	70.6	149.9
2019년 1/4분기	114.2	95.6	94.4	68.6	148.1
2019년 2/4분기	114.8	96.1	92.6	70.4	145.7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p임(2019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19년 5월 8일~5월 22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